
전체 주제:
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
교회의 건축을 위한
주님의 회복의 내재적인 의미

메시지 9

에스라의 정화의 사역

성경: 스 9:1-10:14, 마 5:8, 계 22:4, 21:18하, 21하

I. 에스라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 가운데 혼합이 있었지만 그는 ‘거룩한 씨’가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별되게 함으로 회복을 정화했다—스 9:1-10:14.

- A. 주의 회복은 거룩한 씨이다. 우리는 거룩한 씨가 이방에 속한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도록 반드시 순수해야 한다.
- B. 주의 회복 안에는 ‘거룩한 씨’를 이방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별하기 위한 정화의 필요가 있다—9:1-10:14.
 - 1. 주의 회복의 모든 단계들 안에 정화의 필요가 있다.
 - 2. 지방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혼합에 있어서 철저히 정화되어야 한다.
 - 3. 어떤 범속한 것이나 주의 회복의 하늘에 속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은 반드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—딤후 2:19-22.

II. “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”—마 5:8.

- A. 마음이 순수한 것은 목적에 있어서 단일하고,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—고전 10:31.
- B. 순수한 마음은 주님을 유일한 목표로 취하는 마음이다—딤후 1:5, 딤후 2:22, 시 73:1.
- C. 마음이 순수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—욥42:5.
 - 1. 신약의 감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은 그분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영접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가 되도록 조성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.
 - 2.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.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때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기 때문이다.
 - 3.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-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. 그럴 때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권위에 있어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다—고후 3:18, 창 1:26.
 - 4.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구속받고, 거듭나고, 새롭게 되고, 거룩해 되고, 변화 되고, 같은 형상을 이루고, 영화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—계 22:4.
- D.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볼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혐오하고 자신을 부인한다—욥 42:6, 마 16:24, 눅 9:23, 14:26.

III. “순수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”—딤후전 3:9.

- A. 순수한 양심은 혼합된 모든 것이 정화된 양심이다.
- B.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—1:19, 3:9.
 - 1. 선한 양심은 범죄가 없는 양심이다. 우리가 행한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정결케 하심에 의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—요일 1:9, 7.
 - 2. 순수한 양심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추구한다는 것의 간증이다.
 - a. 바울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었다—딤후 1:3.
 - b. 많은 다루심을 통한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만이 양심이 순수하고 단일해지도록 이끌 수 있다.

IV. “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천하여 ... 순수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”—고후 6:4상, 6.

- A. 순수함은 인도직분의 선결 조건이며 우리의 봉사의 기본 조건이다—딤후전 3:9, 딤후전 1:5.
 - 1. 주님의 일이나 그분의 교회를 접촉함에 있어서 순수한 동기를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—딤후 1:3, 딤후전 3:9.
 - 2. 순수하지 않음은 종종 오해와 의심의 근원이 된다—딤후 1:15.
- B.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자격은 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영의 순수성이다. 영이 순수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—고후 7:1.
 - 1. 하나님을 더 알수록 우리는 능력보다 순수성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다.
 - 2.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—자아와 영의 혼합—이다—히 4:12..
 - 3. 우리가 이러한 순수성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순수성에는 겉사람의 모든 오염이 없기 때문이다—고후 4:16.

V. “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”—요일 3:3.

- A. ‘이 소망’은 주님과 같이 되는 소망, 삼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는 소망이다—1-2절.
- B.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—1:9, 2:27-29, 3:7.

VI. “그 성은 정금이요 맑은 유리 같더라”, “그 성의 길은 정금이요 투명한 유리 같더라”—계 21:18하, 21하.

- A.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성이 정금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전적으로 신성한 본성에 속하며 신성한 본성을 그 요소로 취한다는 것을 상징한다.
- B. 새 예루살렘의 길과 성 자체를 상징하는 정금은 맑은 유리 같으며 성 전체가 투명하고 불투명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상징한다.